

슬루싱의 두 가지 의미 유형

위혜경* †

단국대학교

Hae-Kyung Wee. 2015. Two Semantic Types of Korean Sluicing Constructions. *Language and Information* 19.2, 109-125. In this study, I attempt to show two points about Korean sluicing. First, the semantic source of the null subject of the copula phrase in Korean sluicing is a null pronoun. This null subject pronoun may refer to either the antecedent indefinite individual or the antecedent event of the preceding clause. Second, depending on the presence/absence of postpositions in the remnant wh-phrase, sluicing constructions are classified into two different semantic types: i) an equative clause and ii) a predicational clause. (Dankook University)

Keywords: sluicing, *kes*-cleft, copula, equative, predicate, argument

1. 서론

영어에서 슬루싱이란 (1a)에서와 같이 선행절과 함께 나타나는 내포 wh-의문문이다. (1a)와 같은 슬루싱 구문은 일반적으로 (1b)와 같은 문장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본다. (Ross 1969, Fiengo and May 1994, Chung et al 1995, Merchant 1998, 2001 etc.). 일반적으로 비한정 명사구(indefinite NP)를 상관구(correlate)로 갖는 wh-구가 잔여구(remnant)로 남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생략된다는 것이다.

- (1) a. John met somebody, but I don't know who.
b. John met somebody, but I don't know who_i John met t_i.

영어 슬루싱 구문의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Ross 이후로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가졌고 Merchant(1998)의 초기 연구 이후로 Lasnik (2001), Fox and Lasnik (2003), Merchant (2001, 2004, 2008) 등이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wh-구의 이동 후에 생략이 발생했으며 그 생략은 음운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발음 되지 않지만 통사구조는 (1b)와 같이 그대로

* 귀중한 지적과 논평으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세 분의 심사자께 감사를 드린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448-701

E-mail: hkwee@dankook.ac.kr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한편, 한국어의 슬루싱이라고 할 수 있는 (2)와 같은 문장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와는 다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준호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는 누구인지 모른다.

Merchant(1998)는 일본어와 같은 영주어(null subject) 언어들은 슬루싱 구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슬루싱이 아닌 계사(copula) 구문, 즉 그가 말하는 유사슬루싱(pseudosluicing) 구문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어 문장의 경우 TP의 PF 삭제에 의해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영주어 (null copular subject)와 계사 (copular verb)로 이루어져 있는 구문이라는 것이다.¹

한국어의 슬루싱 구문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분석이 통용되고 있다. 것-분열문으로부터 생략된 구문이라는 주장 (Park 2001)과 것-분열문이 아닌 영대명사 pro를 주어로 가지는 pro XP-copula 구조의 일반적인 계사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손근원(2000)의 주장 등이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슬루싱은 손근원과 Merchant가 일본어에 대하여 제시한 방향과 같이 영주어+계사구문 (pro XP-copula)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여, 이때 영주어가 대명사 그것과 동일한 pro라는 손근원의 주장과 것-분열절이 삭제된 결과라는 Park(2001)의 주장을 재검토하여 의미적 분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분열절에 대한 위의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후치사 유무에 따른 슬루싱 구문의 두 가지 의미유형을 제안하고 4장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유형에 대한 근거한 근거를 제시하고 5장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2. pro vs. 분열절

슬루싱의 주어가 것-분열절이 아닌 대명사와 같은 pro라고 하는 손근원(2000)의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분열구문의 초점(pivot)에는 후치사가 보존되어야 하는 반면, 슬루싱 구문은 후치사 출현이 수의적이라는 관찰이다.

- (3) a. 민호가 선물을 받은 것은 어떤 여자*(로부터)이다.
b. 민호가 어떤 여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 여자(로부터)인지 모른다.
- (4) a. 민호가 꽃을 산 것은 수미*(를 위해서)이다.

1 Merchant가 의미하는 슬루싱은 (1b)와 같은 문장에서 선행절과 동일한 TP 부분이 발음되지 않는 문장으로 정의된다. 그런 의미에서 Merchant는 한국어나 일본어의 (2)의 모른다의 보문절을 그가 말하는 슬루싱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그 생략 이전 상태 혹은 발음되지 않은 부분이 (1b)와 같은 일반 wh-의문문에서 유래한 것이든 Merchant의 주장처럼 공주어와 계사로 이루어진 유사슬루싱이든, (2)의 내포문의 경우를 슬루싱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즉, 그 슬루싱이 Merchant식의 의문문에서 도출된 이동-삭제 결과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포의문문이 명시적으로 절의 형태를 띠지 않고 절의 일부만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영어와 같이 슬루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엄밀히 말하면 내포 슬루싱이라고 불러야 정확하겠으나 간단히 슬루싱으로 명명하겠다.

b. 민호가 누군가를 위해서 꽃을 샀다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인지 모른다.

손근원은 이러한 후치사 출현의 의무성 여부에 근거하여 (3b, 4b)의 슬루싱구문이 분열절이 아니라 결국 (3b', 4b')과 같이 pro나 그제와 같은 대명사 주어와 함께 나타나는 (5)와 같은 계사구조라고 주장한다.

- (3) b'. 민호가 어떤 여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데 나는 [cp pro/그제 어떤 여자(로부터) 인지] 모른다.
- (4) b'. 민호가 누군가를 위해서 꽃을 샀다는데, 나는 [cp pro/그제 누군지/누구를 위해서인지] 모른다.
- (5) pro XP-be

반면, Park(2001)은 대명사나 pro의 의미가 주어로서 가능하다는 손근원의 입장을 받아들이지만 그 대명사가 사실은 것-분열절이 생략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들 중 두 가지만 짚어보겠다.

첫째, 상관구가 없는 슬루싱, 즉, 스프라우팅의 경우 (6a,b)에서 보듯이 슬루싱은 후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위에서 것-분열절도 후치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Park은 대명사 그제/pro도 스프라우팅의 경우 항상 후치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것-분열절과 동일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6) a. 존이 창문을 부셨다고 하는데 너는 _____ 무엇으로인지 아니?
- b. *존이 창문을 부셨다고 하는데 너는 _____ 무엇인지 아니?

(6b)가 비문법적인 이유가 슬루싱의 영주어가 것-분열절로부터 유래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Park(2001)의 것-분열절 분석에 의하면 슬루싱의 영주어가 분열절인 존이 창문을 부순 것은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치사가 뒤따라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7a)에서 관찰되듯이 무상관구의 슬루싱(즉, 스프라우팅)의 경우에 섬제약 효과를 보이는 반면, 유상관구의 슬루싱은 섬제약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Park은 (7a)와 같은 슬루싱의 주어는 (7b)와 같이 공백 t를 포함한 주어는 아닌 (7c)와 같은 복원(resumptive) 대명사로 제안한다.

- (7) a. 선생님이 *(어떤 문제인가를) 잘 푼 학생을 칭찬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인지 너는 아니?
- b. 선생님이 [t 잘 푼 학생을] 칭찬했다고 하던 것이
- c. 선생님이 [어떤 문제인가를i 잘 푼 학생을] 칭찬했다고 하던 (바로 그)것이

(7a)의 슬루싱의 주어는 (7c)와 같이 복원 대명사와 함께 재구조화 된 것-구문으로서 섬제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다. 따라서 한국어 슬루싱 구문의 주어는 pro 혹은 대명사라는 손근원의 주장과 달리 것-분열절과 동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Park의 설명에 의하면, 복원 명사를 설정하는 슬루싱 구문의 주어는 항상 선행 명사구를 공지시키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항상 개체 유형 (e type)이어야 한다. 그런데, 계사구문에서 후치사가 출현하는 경우에 슬루싱 구문을 하나의 절(clause)로서 의미적 도출을 하는 과정에서 주어인 개체 유형과는 맞지 않는 불일치를 야기 시킬 수 있다. 3절에서 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겠고,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슬루싱의 영주어는 일반적으로 손근원의 주장대로 대명사와 동일한 범주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선행사라고 할 수 있는 비한정 명사구(indefinite NP) 즉, 상관구(correlate)가 발생하는 경우에 (8)의 영주어가 (8a)와 같이 그것과 같은 대명사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무상관사 슬루싱(sprouting)의 경우에는 대명사와는 차이를 보이며 (8b)와 같은 분열절의 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 (8) [] XP-be
 a. 그것이/그것은 (그게/그건)
 b. -것 분열절: V+(는)ㄴ것이/것은

둘째, 이때의 pro나 것-분열절의 의미를 갖는 영주어는 계사구의 후치사 발생 여부에 따라 의미적으로 '개체' 유형 (e type)과 '사건' 유형 (event type)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잔여구에 발생한 계사구문의 유형도 각각 개체 유형 (e 타입)과 속성 유형 (et 타입)으로 나뉜다. 그리하여, 한국어의 슬루싱 구문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두 가지 의미적 유형, i) 등가절(equative clause) 유형과 ii) 서술절 (predicational clause) 유형으로 나뉜다.

다음절에서는 복원 대명사를 가정한 Park(2001)의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의 두 가지 의미적 유형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슬루싱 구문의 의미 유형

Park의 주장대로 (7a)의 슬루싱의 영주어가 (7c)라고 한다면 다음의 (9)와 같은 슬루싱은 (9b)와 같은 주어가 아니라 (9c)와 같은 주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때 슬루싱의 주어인 대명사 *그게*는 선행사인 *누구에겐가*와 서로 같은 개체를 지칭하게 된다.

- (9) a. 그 도둑이 존이 누구에겐가 준 물건을 훔쳤는데, [] 누구(에게)인지 모르겠다.
 b. 그 도둑이 존이 누구에겐가 준 물건을 훔쳤는데, [pro/그게] 누구(에게)인지 모르겠다.
 c. 그 도둑이 존이 누구에겐가 준 물건을 훔쳤는데, [존이 누구에겐가i 준 물건을 훔쳤다는 바로 그게]i 누구(에게)인지 모르겠다.

슬루싱 구문의 주어와 술어가 의미적으로 어떤 관계를 이루게 되는가를 보기 위해 주어와 잔여구인 계사구와의 의미적 결합을 통한 문장의 도출 과정을 살펴보겠다. 특히, 후치사

발생시와 미발생시의 주어와의 의미관계가 어떻게 조합을 이뤄 절/문장의 의미를 이루게 되는가를 고려해 보자.

(9c)에 따르면 주어는 항상 선행 명사 개체 *누구에게*를 공지시하는 e 타입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의 (4, 5)에서 관찰한대로 슬루싱의 잔여 계사구에는 후치사 출현이 수의적이다. 따라서 계사구는 후치사 발생 여부에 따라서 의미적으로 다른 유형을 발생시키게 된다. 후치사가 탈락된 *누구인지*의 *누구*는 e 타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to whom' 또는 *누구를 위하여* 'for whom'과 같이 후치사 출현시에는 의미적으로 e 타입이라고 하기 어렵다. *누구에게*라는 후치사구는 영어의 전치사구와 마찬가지로 속성유형 (et 타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성 유형을 갖는 계사구문의 주어는 무엇일까? *누구에게*는 의미적으로 '속성' 유형이지만, 의미적으로 개체의 '속성'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선행하는 '사건'의 GOAL의 의미역할을 표현하는 '사건'의 속성으로 해석해야 의미가 부합한다. 즉, 인물/사물을 '개체'로 지칭하는 주어가 아닌 '사건'을 지칭하는 주어라야 의미적으로 계사구와의 결합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주어가 '사건'을 지칭하고 후치사구는 그 사건의 GOAL을 의미하는 '속성'의 의미 유형을 갖게 되어야 주어와 계사구간의 의미적 결합이 가능하다. 그런데 (9c)의 복원대명사 주어는 후치사 *-에게*가 있던 없던 주어가 명사인 '개체'를 지칭하도록 분석되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후치사 출현 여부에 따라 계사구는 '개체' 유형과 '속성' 유형으로 달라지고, 이에 따라 슬루싱의 주어의 의미도 명사 '개체' 유형과 '사건' 유형으로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만 주어-술어의 관계도 적합한 의미적 결합 관계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포착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슬루싱의 주어의 의미 유형은 후치사 발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뉘어야 함을 제안한다.

(10) 슬루싱 영주어의 의미 유형

- a. 개체(individual) 유형 (e type): 무후치사 계사구와 함께.
- b. 사건(event) 지칭 (event type): 유후치사 계사구와 함께.

이를 (9a)에 적용하면 무후치사 계사구의 주어는 *누구*와 같은 개체 유형이고, 유후치사 계사구의 주어는 *존이 누구에게*가 준 사건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9) a'. 그 도둑이 존이 누구에게가 준 물건을 훔쳤는데, [] *ji* 누구인지 모르겠다.
- a". 그 도둑이 존이 누구에게가 준 물건을 훔쳤는데, [] *jj* 누구에게인지 모르겠다.

이러한 주어의 유형에 따라 슬루싱의 잔여구인 계사구의 유형도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발생한다.

(11) 슬루싱 계사의 기능

- a. 주어가 '개체'일 때:
 - (i) 잔여구인 의문사+∅는 개체유형(e type).
 - (ii) 계사(copula)는 주어 개체와 의문사 개체간의 등가(equality)를 의미하는 이항술어 (2-place predicate).

b. 주어가 '사건'일 때:

- (i) 잔여구인 의문사+후치사는 속성유형 (et type).
- (ii) 계사(copula)는 의미적으로 무효 (semantically vacuous).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 앞서 우선 이때 발생하는 계사 -이의 의미적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²

4. 슬루싱의 의미 유형

4.1 계사구와 슬루싱의 유형

Higgins (1973, 1979)에 따르면, 영어의 경우 계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 (13b를 제외하고 Barros 2014에서 재인용.)

- (12) Equative clause:
 - a. To love is to exalt. (Partee 1986)
 - b. Cicero is Tully.
- (13) Predicational clause:
 - a. Sally is tall.
 - b. Jim is in the park.
 - c. Jack is the president.
- (14) Identificational clause:
 - a. That (person) is Jack.
 - b. That is a lion.
- (15) Specificational clause:
 - a. The president is Jack.
 - b. What Sally is is proud of herself.

이 분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Barros (2014)에 따르면, 이 중에서 서술절 (predicational clause)과 등가절 (equative clause)의 분류는 Higgins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확실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³ 이 두 가지 기능이 슬루싱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⁴

우선, (12)와 같은 등가절의 특징은 계사를 중심으로 양쪽의 항목이 반드시 같은 의미적 유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쪽이 개체 유형 (e type)이면 다른 쪽도 명사를 위한 일반 개체 유형이어야 한다. 이러한 등가절의 의미는 한국어 계사구문에서도 발생하며, 홍재성(2010)이

2 졸고(2015)에서는 분열문에 대하여 동일한 의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3 나머지 두 개의 계사구의 기능은 서술적 기능과 등가적 기능에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자세한 논의는 Barros (2014) 참조.

4 슬루싱 구문의 계사의 의미적 기능에 대한 다른 견해로는 Den Dikken(2006)의 역서술(predicate inverse) 분석을 이 용한 Park and Li (2014), Kim (2012) 등이 있다.

분류한 계사구문의 기능 중 ‘등가문’이라 불리는 다음과 같은 계사구문이 Higgins의 등가절의 기능과 동일한 범주이다.

(16) 김정식이 김소월이다.

다음으로 (13)과 같은 계사의 서술적 기능을 살펴보면, 영어에서는 계사 be 뒤에 형용사나 속성명사 또는 전치사구가 온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계사가 서술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비한정(indefinite) 명사구나 속성적(attributive) 한정표현(definite description)과 함께 할 때이다. 그리고 이때의 계사 -이는 의미적으로 무효(semantically vacuous)하다고 할 수 있다.

(17) a. 수미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b. 김수미가 회장이다.

따라서 이때의 슬부는 속성유형 (et 타입)이다. 그런데 영어 (13b)에 해당하는 한국어의 후치사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가 아닌 -있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영어의 전치사구와 함께 발생하는 계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8) 수미는 방안에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계사 -이는 ‘일반적으로’ 영어의 (13b)와 같은 서술적 역할은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홍재성은 후치사구와 발생한 계사를 다음의 예를 들며 분열문이라는 범주로 따로 분류하였다.

(19) 내가 그 책을 빌려 준 것은 지우에게였다.

다시 말하면 분열문에 나타나는 계사구문은 일반적인 계사구문의 기능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후치사와 발생하는 계사는 분열문만이 아니라 슬루싱이나 대명사와도 함께 발생할 수 있음을 이미 관찰하였다. (20)과 같이 분열절의 주어를 대명사로 교체해도 역시 후치사구 계사구가 가능하다.

(20) 그것은 지우에게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17)의 한국어 계사의 슬어적 기능의 예에 슬루싱과 분열절 등의 후치사구와 발생하는 계사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즉, 분열문과 슬루싱에 발생하는 유후치사 계사구는 서술적 기능의 계사구의 추가된 한 종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영어의 전치사구와 발생하는 계사와 다른 한 가지 조건은 그 주어의 의미가 일반 ‘개체’일 수는 없고 ‘사건’ 유형이라야 한다는 점이 될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후치사구가 어떻게 전통적 의미론에서 취급되는지에 대하여

상기해 보자.

4.2 후치사 발생과 의미 유형

4.2.1 서술절(predicational clause)로서의 슬루싱. Davidson의 사건의미론(Event Semantics)이나 Parson (1980)의 Neo-Davidsonian 이론에 의하면, 부사구 beautifully나 in the kitchen 등의 외연(denotation)은 사건(event)에 대한 일항 술어(one-place predicate)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21a)는 (21b)와 같은 사건의미론으로 표상된다.

- (21) a. Mary danced beautifully in the kitchen.
 b. $\exists e$ (dance(e, mary) & beautiful(e) & in_the_kitchen(e))

한국어의 누구에게와 같은 후치사구도 의미적으로 개체 유형일 수 없고 영어의 전치사구와 같이 일항 술어인 속성 유형(<et> type)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문장에서 술어(predicate)로서의 의미적 기능을 하게 된다. 특히, 후치사 -에게는 사건 구조에서 '목적지(goal)'를 의미하는 술어가 된다. 그리고 이 'N-에게'라는 속성은 3절에서도 지적했듯이 '논항' 개체의 GOAL을 표현하는 속성이 아니라 (21b)의 in the kitchen의 기술에서도 나타난 대로 '사건' e 의 GOAL이어야 한다.

이렇게 유후치사구는 '사건'에 대한 술어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때의 주어는 일반 명사구의 개체가 아닌 '사건(event)'을 지칭하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계사구문은 그 사건의 목적지(goal) 의미역을 밝히는 속성 유형으로서 '사건' 주어에 대한 술어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사건 주어'와 '목적지 술어'로 이루어진 명제로서 슬루싱 구문 전체의 의미가 완성된다. 즉, 주어는 '사건'으로서의 개체 유형이고 초점은 '속성' 유형(<et> type)이므로 주어와 술어간의 타입간의 결합(type match)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2a)에서 선물을 보낸 사건을 e 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인지는 보낸 사건의 GOAL이 어디인지를 묻는 술어적(predicational) 계사 의문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은 사건에 대한 서술로서 to-whom(e)의 술어 논리로 표현될 수 있다.

- (22) a. 민호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 누구에게인지 궁금하다.
 b. 민호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을 샀는데, [] 누구를 위해서인지 궁금하다.

(22b)의 경우 슬루싱의 잔여구인 누구를 위해서는 '사다'라는 사건의 '수혜자(beneficiary)'의 의미역을 밝히는 '속성' 타입의 술어적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에 대한 주어는 선물을 산다는 '사건'을 지칭해야 한다. 이 때 전체 문장은 for-whom(e)의 술어 논리로 표현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경우의 계사구문의 기능은 Higgins의 계사의 분류 중 (13)의 '술어절(predicational clause)'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무후치사 계사구문을 살펴보자.

4.2.2 등가절(equative clause)로서의 슬루싱. 무후치사 계사구문은 술어가 아닌 ‘개체’를 지칭한다. 이때 문장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도 역시 ‘개체’로서 문장전체는 주어 개체와 계사구의 개체 간의 등가관계를 형성한다. 즉, 주어의 개체(individual)를 XP, 잔여구의 개체를 YP라고 한다면, ‘XP=YP’의 등가문의 의미로 표현될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23a)는 GOAL=who? 라는 의미로서 그 GOAL의 정체가 누구/무엇인지 묻는 의문문이 형성된다. 그리고 (24a, b)와 같이 다른 논항의 경우에도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 (23) 민호가 누군가_i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j_i 누구인지 궁금하다.
 (24) a. 민호가 수미에게 무엇_i인가 보냈는데, [j_i 무엇인지 아니?
 b. 누군가_i가 수미에게 책을 보냈는데, [j_i 누구인지 아니?

이러한 등가절은 (12)의 영어에 대한 Higgins (1973, 1979)의 ‘등가절 (equative clause)’ 범주와 같은 기능이고, 홍재성 (2010)의 ‘등가문’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때의 계사의 역할은 주어 개체와 계사구 개체간의 등가성을 서술하는 2항 술어 (2-place predicate)라고 할 수 있다. 즉, 두 개체간의 동일성을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위의 소절에서 살펴본 대로 유후치사 계사구는 이와 다르다.

종합하면, (22a)와 (23)의 슬루싱의 영주어와 무후치사/유후치사 잔여구가 나타내는 문장의 의미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일차 술어 논리 (first order predicate logic)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 (25) a. goal(e)=who (ex. (23,24))
 b. to_whom(e) (ex. (22a,b))
 where e=the event of sending a present.

위와 같이 주어와 계사구문간의 의미적 조합 가능성을 통해 적절한 조합과 어긋난 조합을 판별할 수 있다. 즉, ‘사건’ 주어와 ‘속성’ 계사구 (=유후치사구), ‘개체’ 주어와 ‘개체’ 계사구 (=무후치사구)의 조합만이 가능하고, 엇갈린 조합, 즉, ‘사건’ 주어와 ‘개체’ 계사구, ‘개체’ 주어와 ‘속성’ 계사구의 결합은 의미적으로 도출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11)에서 제시한 두 가지 슬루싱의 계사 기능이 합당함을 보이고자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체 유형과 사건 유형을 갖게 되는 주어는 대명사/pro와 동일할까 아니면 것-분열절과 동일할까? 이에 대하여 다음 소절에서 보도록 하자.

4.3 슬루싱 주어의 의미

손근원은 슬루싱의 영주어를 대명사와 같다고 주장했고, Park은 분열절이라 주장했다. 우선 본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에 슬루싱의 주어는 대명사/pro와 동일하며 것-분열절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에 대한 근거를 다음에서 살펴보겠다.

4.3.1 대명사로서의 주어 증거 1: 후치사 발생조건. 슬루싱의 후치사는 (26a)처럼 수의적인 반면 분열절의 후치사는 (부가어 초점의 경우에) (26c)처럼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슬루싱의 영주어는 분열절과 일치하지 않는다.⁵ 반면, 같은 경우 대명사 주어는 (26b)처럼 후치사가 선택적이라는 점에서 슬루싱과 일치한다. 따라서 후치사 발생과 관련하여서 영주어의 출처를 대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6) a. 민호가 누군가를 위해서 꽃을 샀는데, [] 누구(를 위해서)인지 궁금하다.
 b. 민호가 누군가를 위해서 꽃을 샀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인지 궁금하다.
 c. [민호가 꽃을 산게] 누구*(를 위해서)인지 궁금하다.

그렇다면, 대명사가 지시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후치사가 선택사항이라는 것은 주어 '사건'과 '개체'를 둘 다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11)에 의해서 무후치사일 경우 '그것'은 일반 개체를 받고, 유후치사일 경우 '사건'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대명사 주어는 선행 명사에 대한 조응(anaphora)인 경우 개체 유형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27a)와 같이 그 개체의 의미역은 선행문에서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계사구에서는 무후치사가 가능하다. 그리하여 주어 대명사와 무후치사 계사구 사이의 동일성의 서술절, 즉 등가절(equative clause)이 형성될 수 있다.

- (27) a. 민호가 누군가_i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그게]_i 누구_j인지 궁금하다.
 b. 민호가 누군가_e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그게]_e 누구_e에게인지 궁금하다.

즉, 무후치사 계사구가 가능한 이유는 선행절에 나타난 비한정 명사구 (indefinite NP) 누군가가 주어 대명사 그_i의 선행사가 되어 개체를 지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1a)에 의해서 (27a)의 주어 그_i와 누구_j는 모두 '개체' 유형으로서 등가관계로 서술되어, 그것=who?, 즉, i=j?라는 등식 의문문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27b)에서와 같이 유후치사의 경우에는 (11b)에 의해 주어인 '그게'는 사건이어야 하는데, 대명사가 선행절의 사건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 대명사가 선행명사뿐 아니라 절이나 문장을 받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⁶ 따라서, (27b)에서 주어 그_e는 선행명사 누군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앞 절의 선물을 보낸 '사건' e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대명사 주어는 '사건 e₁'과 '개체 i'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유후치사/무후치사 계사구문이 모두 가능하다. 반면, 분열문의 부가어 초점은 (26c)에서와 같이 반드시 유후치사 계사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슬루싱의 주어는 분열절이 아닌 대명사와 동일한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3.2 대명사로서의 주어 증거 2: 스프라우팅. 앞 절에서 대명사 주어는 선행절의 비한정 명사구에 의한 '개체'를 선행사로 지칭할 경우 무후치사 계사구의 '개체'와 '개체=개체'의 등가문 관계를 이루게 되어 정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 설명이 올바르다면,

5 논항 초점은 분열절에서도 후치사가 수의적인데 이에 대한 이유는 줄고(2015)를 참조 바람.

6 이는 분열절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부가어 초점에서 분열절은 반드시 후치사를 동반해야 하며 따라서 슬루싱의 영주어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상관구(correlate)가 없는 무상관구 슬루싱의 경우, 즉 스프라우팅(sprouting)의 경우에는 어떤 예측이 가능할까? 이런 경우 슬루싱의 영주어가 대명사라면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명사 ‘개체’를 지칭할 수 없고, ‘사건’지칭의 의미만이 가능할 것이다. ‘사건’지칭 주어는 ‘개체’ 지칭 계사, 즉, 무후치사 계사와는 (11)에 의해 양립 불가능하다. 무후치사 계사구는 개체 유형으로서 등가문을 이루기 위해 주어도 역시 개체 유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상관구 슬루싱(sprouting)은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개체 유형의 계사구(즉, 무후치사 계사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술어’ 기능을 하는 유후치사 계사구만이 정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예측은 (6a,b)의 대조에서 나타난 대로 사실과 잘 부합한다.

- (6) a. 존이 창문을 부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으로인지 아니?
- b. *존이 창문을 부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니?
- a'. 존이 창문을 부셨다고 하는데, 창문을 부순 게 무엇으로인지 아니?
- b'. *존이 창문을 부셨다고 하는데, 창문을 부순 게 무엇인지 아니?

물론, (6a'b')의 대조에서 보듯이 스프라우팅의 경우는 대명사 주어뿐 아니라 분열절 주어라도 슬루싱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 즉, 대명사 주어나 분열절 주어 모두 유후치사만이 가능하다. 이에 근거하여 Park (2001)은 슬루싱의 주어의 근원이 분열절이라고 주장했음을 2절에서 보았다.

그러나 스프라우팅이라고 해서 항상 것-분열절과 슬루싱이 같이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경우는 부가어의 초점을 갖는 경우이지만,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 (28) a. *민호가 꽃을 보냈는데, pro/그게 누구인지 모른다.
- a'. 민호가 꽃을 보냈는데, pro/그게 누구에게인지 모른다.
- b. 민호가 꽃을 보낸 게 누구인지 모른다.
- b'. 민호가 꽃을 보낸 게 누구에게인지 모른다.

위의 (28a)의 경우에도 무후치사 잔여구는 ‘개체’로서 (11a)에 따라 개체를 의미하고 등가절을 위해 주어도 개체를 필요로 한다. 비문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살펴본 대로 대명사 주어의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개체’를 지시하지 못하고 앞 절 전체의 사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명사 사건=개체’의 등가절을 형성하게 되어 의미적 비문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개체’ 계사 구문(즉, 무후치사 계사구문)은 대명사 주어가 ‘개체’ 유형이 되기 위하여 상관구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선행명사가 없으므로 대명사 주어는 ‘개체’가 아닌 ‘사건’으로만 해석되어 (11b)의 조건에 따라 ‘속성’ 유형이 필요하여 반드시 후치사를 동반해야 한다. 따라서 (28a')와 같은 슬루싱 구문만이 가능하다. 반면, 분열절 주어의 경우는 (28b)에서 보듯이 무후치사 계사구가 올때도 정문이 될 수도 있다.⁷

결론적으로 스프라우팅의 영주어도 대명사와는 같은 문법성을 보이지만 분열절과는

7 이 경우 분열절이 문법적인 이유는 줄고(2015) 논문을 참조 바람.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Park(2001)이 것-분열절과 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후치사 발생에 의한 문법성 대조를 나타내는 (6a,b)는 그의 주장대로 것-분열절과 같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a)는 영주어가 선행절의 '사건'을 받아서 괜찮지만, (6b)에서는 영주어가 선행명사를 필요로 하는 '개체' 대명사여야 하는데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때의 슬루싱의 주어도 (6)에 대한 Park의 분석과는 달리 분열절보다는 대명사를 그 의미적 원천으로 봐야 할 것이다.

4.3.3 대명사로서의 주어 증거 3: 상관구의 중의성. 슬루싱 구문에서 후치사가 수의적일 수 있는 것은 의문사가 담당하는 의미역이 명시된 상관구를 가지기 때문에 그 의미역이 그대로 전달되어 따로 후치사로 표시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슬루싱이라도 후치사가 필수적인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i) 하나는 선행사가 없을 경우이고, ii) 다른 하나는 선행사가 두 개 이상 있어서 어느 것인지 결정할 수 없을 경우이다.

전자는 스프라우팅에서 후치사 없이 개체끼리의 등가문 해석이 필요한 경우 대명사 주어의 선행사 부재로 인한 비문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미 (6b)에서 살펴본 경우이다.

후자는 (29a)의 문장과 같이 선행사가 될 수 있는 상관구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로서 잔여구에서 후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비문이 발생한다.

- (29) a. ?어떤 여자로부터 어떤 남자한테 편지가 전달되었는데, [] 누구인지 모르겠다.
 b. 어떤 여자로부터 어떤 남자한테 편지가 전달되었는데, [] 누구로부터인지 모르겠다.
 c. 어떤 여자로부터 어떤 남자한테 편지가 전달되었는데, [] 누구한테인지 모르겠다.
 d. 어떤 여자로부터 어떤 남자한테 편지가 전달되었는데, [] 누구로부터 누구한테인지 모르겠다.

(29a)에서 무후치사 계사구 누구인지가 '개체'이므로 주어도 '개체'를 지칭해야 한다. 대명사 주어가 개체를 지칭하기 위해서는 선행명사를 받아야 하는데 두 개 이상이라서 대명사는 어떤 선행사를 받아야 할지 결정이 안되어 명사 '개체' 해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어개체=계사구개체'의 등가절 의미가 형성되지 못하여 의미적으로 모호한(vague) 문장이 된다.

유후치사의 경우는 (11b)에 의해 영주어가 '사건'을 의미하고 계사구는 그에 대한 '술어'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29b-d)는 편지가 전달된 '사건'에 대하여 각각 '-로부터'는 그 사건의 출처(source), '-에게'는 목적지(goal), 두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땐 출처와 목적지 (source and goal)로서 '속성' 유형의 '술어' 기능을 함으로써 의미적으로 서술절(predicational clause)이 형성되어 정문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은 섬제약 위배 현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다.

4.3.4 섬제약 효과. (7)에서 보았듯이 상관구가 있는 슬루싱은 섬제약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 손근원(2000)은 (9c)가 (9b)보다 더 좋은 문장인 이유는 영주어의 대명사적 특성 때문에 앞의

명사구나 내포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 (9) a. 그 도둑이 존이 메리에게 준 물건을 훔쳤다.
- b. *그 도둑이 존이 _____ 준 물건을 훔친 것은 메리(에게)였다.
- c. ?그 도둑이 존이 누구에게가 준 물건을 훔쳤다는데, [] 누구(에게)인지 모르겠다.
- c'. 그 도둑이 존이 누구에게가 준 물건을 훔쳤다는데, **pro/그게** 누구(에게)인지 모르겠다.

명사구나 내포절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11)에서 제시한 ‘개체’ 유형과 ‘사건’ 유형의 차이와 부합하는 관찰이라고 할 수 있다. 비한정 명사구는 선행사로서 섬제약 효과를 보이지 않고 가장 높은 작용역(scope)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론 연구에서 널리 관찰된 사실이다(cf. Heim 1983). 따라서 슬루싱의 영주어 대명사가 섬구조속에 있는 비한정 명사구 ‘누군가’를 선행사로 취하는 경우 ‘개체’유형을 취하여 무후치사 잔어 계사구와 결합하면 등가절(equative clause)을 이루게 된다. 반면, 후치사 출현시, 영주어 대명사는 앞의 절을 받아 ‘사건’ 유형을 취하고 계사구는 사건에 대한 속성 유형으로 서술절(predicational clause)을 형성한다. 그런데 Park(2001)은 (7c)와 같이 섬구조 내부의 요소를 받는 영주어의 내용을 복원 대명사로 분석하였다.

- (7) a. 선생님이 *(어떤 문제인가를) 잘 푼 학생을 칭찬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인지 너는 아니?
- b. 선생님이 [t 잘 푼 학생을] 칭찬했다고 하던 것이
- c. 선생님이 [어떤 문제인가를i 잘 푼 학생을 칭찬했다고 하던 (바로 그)것i이]

이러한 분석을 (9a)에 적용하면 (9c)와 같은 주어가 되는데, 이 경우 에게가 있건 없건 복원 대명사로 명사 ‘개체’만을 지시해야만 한다.

- (9) a. 그 도둑이 존이 누구에게가 준 물건을 훔쳤다는데, [] 누구(에게)인지 모르겠다.
- b. 그 도둑이 존이 누구에게가 준 물건을 훔쳤다는데, [**pro/그게**] 누구(에게)인지 모르겠다.
- c. 그 도둑이 존이 누구에게가 준 물건을 훔쳤다는데, [**존이 누구에게가i** 준 물건을 훔쳤다는 바로 그게i] 누구(에게)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는 이미 살펴 본대로 유후치사 계사구와는 서로 부합하지 못하는 조합이다. (11)에서 제안된 대로 유후치사 계사구는 ‘속성’유형으로서 ‘개체’가 아닌 ‘사건’을 필요로 한다. (11)에 의하면, 이 슬루싱의 영주어는 다음의 (9b)에서 제시된 대로 두가지 선행사를 지시 가능한 대명사로 봐야 한다.

- (9) b'. 그 도둑이 존이 누구x에게가 준y 물건을 훔쳤다는데, [**pro/그게**]x,y 누구(에게)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무후치사 등가절일 경우 $x=who?$ 라는 의문 등가절(equative clause)을, 유후치사일 경우 to-whom(y)의 서술절(predicational clause)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영대명사로서 분석하는 것이 (9a)의 유/무 후치사의 중의성을 더 적절히 포착할 수 있다. (7a)의 문장이 좋은 이유도 영주어가 대명사로서 앞의 선행사를 지칭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계사구는 무후치사이기 때문에 개체간의 등가절 발생이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i) '의문사+후치사'의 경우엔 주어가 사건 유형(event type)을 지칭하고 후치사구 계사 구문은 et 타입의 술어적(predicational) 의미를 형성한다는 것과 ii) '초점+∅'의 경우에는 계사구가 '개체'를 지칭하여 주어도 '개체유형(e type)'을 지칭하며 주어와 초점간의 등가절(equative clause)의 의미를 갖는다는 (11)의 제안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외로 보이는 경우도 관찰된다. Park(2001)에서 관찰된 대로 스프라우팅에서는 슬루싱의 영주어를 영대명사와 동일시 할 수 없고, 분열절로 보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선행사가 없는 무상관구(no correlate/sprouting) 슬루싱 구문에서 후치사 발생 여부에 따라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다음 소절에서 살펴보자.

4.3.5 분열절로서의 슬루싱 주어.

- (30) a. 민호가 열심히 썼는데, []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a'. 민호가 열심히 썼는데, [?그게/민호가 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b. 수미가 오랫동안 읽었는데, [] 무슨 책인지 모르겠다.
 b'. 수미가 오랫동안 읽었는데, [?그게/수미가 읽은게] 무슨 책인지 모르겠다.
 c. 수미가 맛있게 먹었는데, []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다.
 c'. 수미가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수미가 먹은게]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다.⁸

(30a,b)와 같은 스프라우팅의 경우에는 (6b)와 달리 정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다.⁹ (30a',b')에서 보듯이 영주어를 대명사 그게로 대체하면 어색한 반면, 분열절로 대체하면 자연스러워진다. 즉, 이 경우 영주어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명사가 아니라 분열절이라야만 가능하다. 이는 (11)의 제안에 의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무후치사 계사구의 경우 '개체' 유형이기 때문에 대명사도 선행사를 반드시 개체를 지칭해서 등가절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스프라우팅의 경우 선행 명사구가 없기 때문에 개체 지칭은 불가능하다. 반면, 대명사가 사건 지칭은 가능한데, 그 경우는 계사구에 반드시 후치사가 동반해야 술어절을 이루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30)과 같이 논항이 계사구가 되는 경우 후치사 미발생으로

8 영어의 it-분열절의 it에 대하여는 비인칭 주어(expletive)로 보는 견해와 지시적(referential) 표현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한국어의 대명사 *그게*는 지시적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다.

9 이러한 경우는 Ok and Kim (2012)에서 스프라우팅이 일반적으로 섬체약의 통제를 받는다는 견해에 대한 반례로 문맥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상황을 언급한 바가 있다.

a. 미미가 맛있게 먹었던 식당을 찾았는데, *무엇인지/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런 섬구조의 경우에만 wh-간여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28a,b)에서 보듯이 스프라우팅의 경우에 무후치사 슬루싱 구문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개체’를 지칭하므로 주어도 반드시 선행 명사를 지칭하는 ‘개체’여야 한다. 그러나 선행명사가 없는 스프라우팅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때 영주어는 누락된 논항 개체를 지시하는 -것분열절로서 무후치사 계사구와 등가절을 이루는 의미 유형만이 가능하다.¹⁰ 이때 영주어는 대명사가 아닌 것-분열절과 동일시 하는 분석만이 가능해진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10-11)의 제안에 대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31) 한국어 슬루싱의 의미: 영주어+잔여 계사구
- a. 영주어(null subject) = i)대명사 pro/그것, 또는 ii)-것 분열절
 - (i) 대명사: i)선행명사 ‘개체(individual)’ 또는 ii)선행 ‘사건(event)’ 지칭
 - (ii) -것 분열절: i)논항 ‘개체’ 또는 ii)선행 ‘사건’
 - b. 잔여 계사구 (remnant copular phrase)
 - (i) 개체 유형 (‘개체’주어일 때): 등가절 (주어=의문사) 발생
 - (ii) 속성 유형 (‘사건’주어일 때): 서술절 (사건 주어의 의미역 서술) 발생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슬루싱 구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 (32) 한국어 슬루싱 구문:
- a. 영주어와 계사구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 b. 영주어
 - (i) 선행사가 있을 경우 영주어는 대명사/pro와 동일하다.
 - 대명사는 선행명사 ‘개체’를 지시하거나, 선행절의 ‘사건’을 지시한다.
 - 이 두 경우는 계사구문의 후치사 발생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 (ii) 스프라우팅의 경우 영주어는 것-분열절과 동일하다. (예문 (30a))
 - c. 계사구문
 - (i) 무후치사 계사구는 개체 유형, 주어도 개체(선행 명사) 유형, 슬루싱 전체 구문은 등가절 유형. (예문 (23))
 - (ii) 유후치사 계사구는 속성 유형, 주어는 사건(선행절) 유형, 슬루싱 전체 구문은 서술절 유형. (예문 (22a))

편의를 위해 위의 예문을 다시 기술한다.

10 (30)의 예문들은 모두 영주어가 선행 사건의 논항을 지시하는 예들이다. 부가어가 잔여구가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 매우 낮아진다.

(30) a. 민호가 열심히 썼는데, ___ ??/*{어디서/밤 몇시까지}인지 모르겠다.

a'. 민호가 열심히 썼는데, ___ 그게/민호가 쓴게 ??/*{어디서/밤 몇시까지}인지 모르겠다.

이와 관련하여 분열문의 논항/부가어 초점과 후치사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2015)를 참조 바람.

- (22) a. 민호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 누구에게인지 궁금하다.
 (23) 민호가 누군가i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i 누구인지 궁금하다.
 (30) a'. 민호가 열심히 썼는데, [?그게/민호가 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부연하면, 슬루싱에서 계사구는 후치사를 동반하면 속성유형이고 이때 영주어는 '사건'을 나타내어, 전체 절은 사건에 대한 서술의 의미 구조(predicational clause)를 갖는다. 반면에, 계사구가 후치사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개체' 타입을 지칭하고, 이때의 영주어는 사건이 아닌 선행사나 논항을 지시하는 '개체' 타입으로서 주어와 계사구의 관계는 주어 개체와 계사구 개체간의 등가절 (equative clause)을 이룬다.

앞으로 남은 문제는 슬루싱의 영주어인 대명사는 선행사가 선행절에 발생할 경우 개체(individual)를 지시하는데 이 경우 선행사의 종류에 상관없이 -것이라는 사물 지칭 표현을 쓰게 된다. 따라서 계사구에 사람이 올 때는 사물=사람과 같은 의미적으로 옳지 않은 등가절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대명사 그것이나 것-분열절이 존재론적으로 실재하는 개체(individual)를 지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경우 왜 사물 지칭 대명사가 인물을 지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References>

- 손근원. 2000. 계사구문에 대한 비수문, 비분열 접근법. *생성문법연구* 10, 267-295.
 위혜경. 2015. 분열문의 의미와 초점 후치사의 수의성. *어학연구* 51-3,
 홍재성. 2010. 프랑스어와 한국어 계사구문의 유형론적 대조. 대한민국 학술원 세미나 발표.
 Barros. 2012. *A Non-repair Approach to Island Sensitivity in Contrastive TP Ellipsis*. CLS 48.
 Barros. 2014. *Sluicing and Identity in Ellipsis*. Doctoral Dissertation. New Brunswick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Chung, Sandra, William A. Ladusaw, and James McCloskey. 1995. Sluicing and Logical
 Form. *Natural Language Semantics* 3: 239 - 282.
 Davidson, Donald. 1980.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Den Dikken, Marcel. 2006. *Relators and linkers: The syntax of predication, predicate inversion,
 and copulas*. Cambridge MA: The MIT Press.
 Fiengo, Robert, and Robert May. 1994. *Indices and identity*. Cambridge, MA: MIT Press.
 Heim, Irene.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Higgins, Francis Roger. 1973. *The pseudo-cleft construction in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MIT.
 Higgins, Francis Roger. 1979. *The Pseudo-cleft Construction in English*. Garland Publishing.
 Kim, Sun-Woong. 2012. A predicate inversion analysis of kukes in Korean sluicing.
Linguistic Research 29.1: 217 - 233.
 Merchant, Jason. 1998. Pseudosluicing: Elliptical clefts in Japanese and English. In *ZA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ed. Artemis Alexiadou, Nanna Fuhrhop, Paul Law, and

- Ursula Kleinhenz*, volume 10, 88-112. Berlin: ZAS.
- Merchant, Jason. 2001. *The syntax of silence: sluicing, islands, and the theory of ellipsi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erchant, Jason 2004. Fragments and ellips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27: 661-738.
- Merchant, Jason 2008. Variable island repair under ellipsis. In *Topics in Ellipsis*, ed. by Kyle John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kkelsen, Line. 2005. *Copular clauses*. John Benjamins.
- Ok, S-S and S-Y Kim. 2012. An Analysis of Sluicing-like constructions in Korean: a non-movement approach. *Journal of Language Sciences* 19.1: 155-180.
- Park, Myung-Kwan. 2001. Subject-less Clefts in Korean: Towards a Deletion Analysis. *Language Research* 37.4: 715-739.
- Park, Myung-Kwan & Li, Zhen-Xuan. 2014. Copula and 'Sluicing' Constructions in Korean, Chinese, and Japanese.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9:3, 427-452.
- Parsons, T. 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Partee, Barbara. 1987. Noun phrase interpretation and type-shifting principles. In *Studies in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Generalized Quantifiers*, ed. by J. Groenendijk, de Jongh, and M. Stokhof, 115 - 41. Dordrecht: Foris.
- Ross 1969. Guess who? In *Chicago Linguistics Society*, eds. Robert I. Binnick, Alice Davison, Georgia M. Green, and Jerry L. Morgan, 252 - 286. Chicago, IL: The Chicago Linguistics Society, University of Chicago.

접수 일자: 2015년 12월 03일

수정 일자: 2015년 12월 23일

게재 결정: 2015년 12월 23일